#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07 웹툰

서울YW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CONTENTS


06 들어가며

07 결과분석

- 07 양적분석
- 09 질적분석 : 성차별적 사례
- 19 질적분석 : 성별고정관념을 해체한 사례

21 나가며

23 부록.
<웹툰 속 차별 혐오 인식 조사>
결과 정리

# 웹툰 모니터링 보고서

2020. 10. 12 - 10. 18

모니터링 대상

**53**편

네이버 웹툰 **26** / 카카오페이지 **27**

네이버 웹툰/카카오 페이지*의 요일별 인기순위 상위 4위 내 등재된 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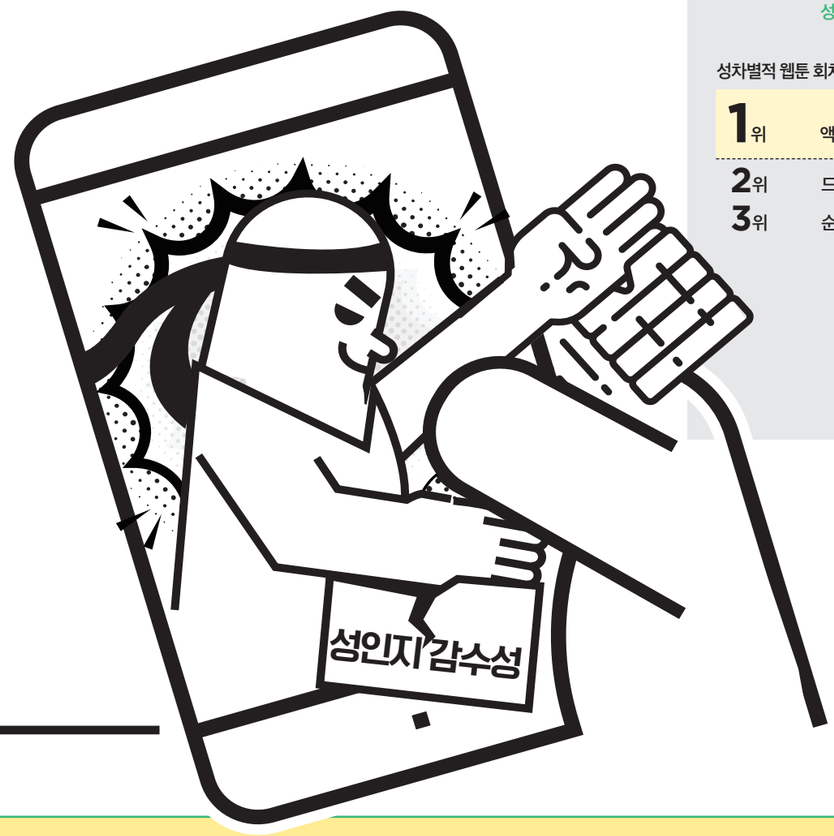
*영향력 있는 1, 2위 플랫폼 선정
*웹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툰 가이드는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의 월간 순 방문자가 1억 7천 4백 만여 명으로 1위, 카카오페이지의 방문자를 7천 3백 만여 명으로 2위라고 발표
*2020년 7월 와이즈앱 웹툰 앱 사용자 동향에서 1위 네이버 웹툰, 2위 카카오 페이지가 차지함.[1]
*한국콘텐츠 진흥원 <2019 만화 산업백서> 또한 현재 웹툰 시장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양대 웹툰 플랫폼 시장으로 평가

범위 : 웹툰별 최신 20회 차[2], 총 1,037회 차
모니터링 인원 : 6명

| 연번 | 장르 | 모니터링 웹툰 수 |
|---|---|---|
| 1 | 순정 | 18 |
| 2 | 드라마 | 11 |
| 3 | 액션(무협) | 9 |
| 4 | 소년 | 5 |
| 5 | 스릴러 | 4 |
| 6 | 판타지 | 3 |
| 7 | 일상 | 1 |
| 8 | 개그 | 1 |
| 9 | 스포츠 | 1 |
| 10 | 감성 | 0 |
| 11 | 시대극 | 0 |
| 12 | BL | 0 |
| 합 계 | | 53 |

성차별적 사례 **16**회

성평등적 사례 **2**회




성적대상화 폭력성

성차별적 웹툰 회차의 장르

| | | |
|---|---|---|
| 1위 | 액션 | 7회차 |
| 2위 | 드라마 | |
| 3위 | 순정 | |

1
플래텀, [와이즈앱 비교하기 #213] 2020년 7월 웹툰 앱 사용자 동향, https://platum.kr/archives/147082

2
신작 웹툰인 네이버 <데드퀸>과 <후기> 제외. 이 두 웹툰은 모니터링 당시 공개된 회차까지만 모니터링 함.

# 01 들어가며

케이티(KT)경제경영연구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국내 웹툰 산업의 매출 규모는 올해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3] '웹툰'(WEBTOON)은 최근 국내 만화 산업 성장의 주축이다. 모바일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웹툰과 웹소설 평균 이용 시간이 동영상 이용 시간의 73%에 육박[4]할 정도로 국내시장에서 웹툰의 인기는 상승세이다. 올해 상반기 <이태원 클라쓰>, <메모리스트>, <루갈> 등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개봉사례에서 볼 수 있듯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즉 오늘날 웹툰은 가장 뜨거운 콘텐츠 중 하나다.

웹툰의 높아진 인기만큼 논란도 많았다. 그간 웹툰이 소수자를 차별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는 8월 네이버 웹툰 <복학왕>, 9월 네이버 웹툰 <헬퍼2: 킬베로스>의 여성혐오적인 장면에 대한 비판 여론과 더불어, 웹툰의 소수자 혐오와 차별표현 논란이 거셌던 한 해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헬퍼2: 킬베로스>에 나타난 적나라한 성폭력, 성착취 묘사,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에 대해 이 웹툰을 자주 시청하던 독자들이 먼저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성혐오적 웹툰에 관한 독자들의 문제제기와 이에 공감하는 시민여론이 뜨거운 상황에서 서울YWCA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2020년 인기 웹툰을 성평등관점에서 분석했다. 본 보고서는 웹툰 내 성차별적 장면들이 어떤 차별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성찰하고, 성평등한 웹툰의 사례를 드러내며 창작의 책임을 고려한 웹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061.html?_fr=st1#csidx6faf7883c20

4 월간 해외 문화정책 동향, 2020년 6월



# 02 결과분석

## 1 성평등·성차별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한 웹툰은 2회차, 성차별적인 웹툰은 16회차가 발견되었다. 성적 도구화(대상화)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 부각·강조 사례가 5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드러낸 사례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웹툰 모니터링 결과 요약**
단위 / 회차

| 구분 | | 회차 수 | 합계 |
|---|---|---|---|
| 성평등적 웹툰 | | 2 | 2 |
| 성차별적 웹툰 | 성적 도구화(대상화)의 문제 | 6 | 16 |
| | 젠더에 기반한 폭력 부각·강조 | 5 | |
| |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드러냄 | 4 | |
| | 외모에 따른 차별의 내용을 포함 | 1 | |

## 2 웹툰의 성차별성과 장르의 상관관계

액션과 드라마 장르에서의 성차별 사례 발견 빈도가 높았다. 액션 장르에서는 성적 대상화(도구화) 관련 사례가, 드라마 장르에서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실시간 성별 인기도 순위를 토대로 보았을 때, 1020 남성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액션 장르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재현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성차별적 웹툰 회차의 장르**
단위 / 회차

| 연번 | 장르 | 성차별 웹툰 회차 수 |
|---|---|---|
| 1 | 액션 | 7 |
| 2 | 드라마 | 5 |
| 3 | 순정 | 2 |
| 4 | 판타지 | 1 |
| 5 | 스릴러 | 1 |
| 합 계 | | 16 |

웹툰의 성차별성과 장르의 상관관계
단위 / 회차

| | 성차별적 고정관념 드러냄 | 성적 도구화 |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 부각/강조 | 외모 평가 | 합계 |
|---|---|---|---|---|---|
| 액션 | - | 5 | 2 | - | 7 |
| 드라마 | 4 | - | - | 1 | 5 |
| 순정 | - | - | 2 | - | 2 |
| 판타지 | - | - | 1 | - | 1 |
| 스릴러 | - | 1 | - | - | 1 |
| 합계 | 4 | 6 | 5 | 1 | 16 |





## 1
##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사례

### 1-1
### 남성성과 관련된 고정관념 조장

네이버 드라마 / 15세 이용가

8.20 / 301화

8.27 / 302화

백호인력소 소장 '이도규'의 등장과 함께 성기가 계속 강조된다. 301화에서는 자신의 성기와 허벅지를 드러내며 "남자는 허벅지가 두꺼워야 남자구실을 한다" "이거 여자 많이 울리겠구만"과 같이 남성의 성적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남성의 성적 능력을 강조하는 등의 표현은 성문화와 성담론의 남성중심성을 강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로 연결될 위험성을 지니기에 문제적이다. 302화에서는 "남자라면 소수에게 다수로 덤벼서는 안 되며, 소수에게 다수로 덤비는 남자는 버러지다"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이러한 대사는 남성성에 대한 특정한 규범을 형성하고, 남성들을 우월한 속성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 2-2
## 김치녀, 명품녀 등 여성혐오적인 내용

네이버 스토리, 드라마 / 15세 이용가

8.11 / 304화

8.25 / 306화

(1) 303화부터 305화까지 '봉지은'이라는 여성 캐릭터는 무능하게 그려진다. 봉지은을 포함한 세 캐릭터는 기업의 인턴인데, 다른 두 캐릭터에 비해 봉지은은 기본적인 업무 능력조차 부족하고 회사 내 태도도 부적절한 캐릭터다. 그런 봉지은의 "새로운 생존 방식"으로 애교가 제시되고, 이를 본 팀장의 호감을 사면서 그날 밤 둘 사이 성행위가 있었음이 암시된다(해당 장면은 주인공이 팀장에게 "잤어요?!"라고 묻고 팀장은 "ㅋ!!"라고 답하는 내용이었지만 논란 이후 "같이 있었어요?"로 변경).



이후 뛰어난 두 인물을 제치고 봉지은이 최종 입사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독수리 타법에, 보고서도 제대로 못 만드는 무능한 여성 인턴이 팀장한테 애교를 부린 뒤 정규직을 꿰찬다는 줄거리는 여성은 능력이 아닌 상사와의 성관계로 채용에 성공한다는 전형적인 여성 혐오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데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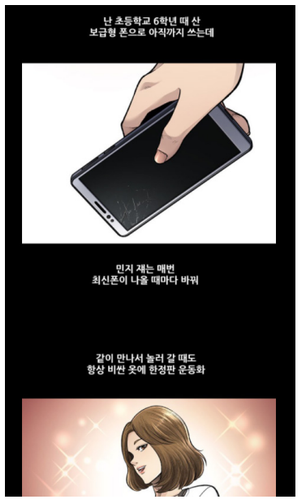
(2) 306화에는 봉지은과 연애를 시작한 팀장의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 팀장은 과거 학생시절 "성적표가 바뀌면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 "인기 없는 남성은 공부라도 잘해서 능력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 여성을 얻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한 인물로 그려진다.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팀장의 연애는 쉽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등장한 장면인데,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외모이며 남성은 자본(능력)이라는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문제의식 없이 드러내었다. 이는 여성은 남성의 능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왜곡된 성인식을 강화하기에 문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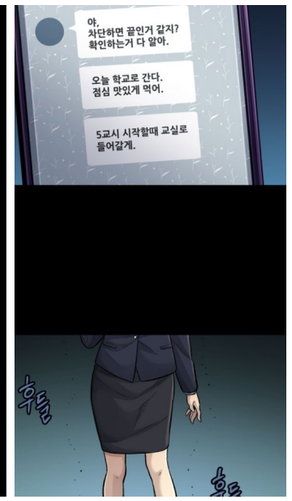
## 2
## 젠더에 기반한 폭력 부각·강조

### 2-1
###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 희화화

네이버 판타지 / 15세 이용가

9.17 / 2화




2화에는 지민과 민지라는 두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 지민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산 보급형 폰"을 아직까지 쓰는 반면 민지는 "매번 최신폰이 나올 때마다 바꾸며" "같이 만나서 놀러 갈 때도 항상 비싼 옷에

한정판 운동화"를 신고 나온다. 지민은 그런 민지를 부러워하는데, 어느 날 민지는 지민에게 랜덤 채팅을 통해 "아저씨가 준 돈"으로 새 휴대폰과 명품들을 샀다고 고백하면서 남성이 "자꾸 무리한 소릴 하길래 그만하자고 하니까" 학교로 온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민은 악의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다. 지나가던 다른 학생도 "넌 하면 한 번에 얼마 받아?"라고 질문한다. 이러한 내용의 전개는 성인이 청소년인 것을 알고 계속 접근하며 협박을 하는 상황이기에 그루밍 폭력에 해당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미성년자 랜덤채팅앱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면 충전 포인트가 차감되고, 반대로 쪽지를 받으면 포인트가 생기는 랜덤 채팅 구조 속에서 포인트가 쌓이면 돈으로 환급받거나 음식, 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하기에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도록 하는 구조라는 것이 중요하다.[5] 하지만 이러한 웹툰의 전개는 청소년들이 "명품을 갖고 싶어서", "사치를 부리고 싶어" 랜덤채팅을 한다는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에 접속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실제로 이 회차에 대한 베스트 댓글은 "몸 팔아서 돈버는 애들 피해자 프레임 씌우는 여성단체 토 나옴", "자기가 업소 나가는 게 왜 피해자가 되는 건지를 모르겠네. 지가 업소 나간거면 피해자가 아니라 걍 ㄱㄹ지. 그 사람한테 피해자 프레임 씌우는 게 말이됨? 걍 편하게 돈 벌고 싶어서 나가는 걸텐데ㅋㅋㅋ", "팩트) 몸파는 년, 사먹는 놈, 이용해 먹는 놈들 이 셋 중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와 같은 내용이 다수였다.

5
[속고살지마] 청소년 성착취의 은상된 랜덤채팅 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3124

## 2-2
## 성폭력을 여성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묘사

네이버 액션 / 18세 이용가

8.4 / 237화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이버 웹툰에 적나라한 성폭력, 성착취 묘사,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등을 담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해당 웹툰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작화와 서사가 반복되어왔다는 독자들의 문제제기에 작가는 "악당들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 알려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도 불편한 장면들이 그려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었던 회차는 237화, 238화이다. 여기에서는 '피바다'라는 여성 인물과 '극악무도'라는 단체의 싸움을 다룬다. '피바다'가 싸움에서 패배하자 '극악무도'라는 단체의 사람들은 "뭐해? 병신들아. 당장 발가벗기지 않고", "네년에게 사내의 무서움을 알려주마", "각오해라 이 년! 그동안 여자 주제에 잘도 시건방을 떨었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피바다를 강간하려고 한다. 피바다는 '강철속옷'을 입고 있어 강간을 피하는 대신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된다.

6
"19금이니 '아동 성착취·여성 강간·폭력' 괜찮다?" 네이버 웹툰 '헬퍼' 논란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0

237화 이후에도 피바다 캐릭터가 강간, 폭력의 피해자로 그려지는 회차가 등장한다. 이 장면이 상대 진영의 극악무도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 먹는 것은 남도 절대 먹지 못하게 해야지", "여자 주제에 잘도 시건방을 떨었겠다"와 같은 대사들은 성범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그려내며 스토리 전개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실제로 이 웹툰의 독자는 한 인터뷰를 통해 "(해당 웹툰이) 모든 여자는 O녀고 남자에게 이용당하는 존재[6]"라는 인식을 조장한다는 점을 문제제기 하기도 했다.

카카오 페이지 순정 / 전체이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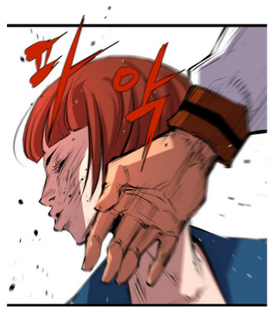
5.27 / 76,77화

75화에서 77화까지 여주인공은 한 남성 캐릭터에게 강간 협박 및 폭행을 당한다. 75화에서 여주인공은 결혼하자고 협박하는 남성 캐릭터에게서 도망가려 하지만 실패하고, 강간 협박을 받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76화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남성에게 반격을 가하지만 미약한 수준이다. 주인공 여성은 나이프로는 방어할 수 없다는 자각 후 "여기서 당신에게 당하든 백작 부인에게 죽든 자살을 하든 난 똑같아요"라고 말하며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 자살시도는 가해자에게 제압당한 후 목을 졸리던 중 남주인공이 등장해 여성을 공격하던 남성에게 총을 쏘아 저지한다. 이후 77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이 작은 몸으로 이런 일을 겪을 동안 난 대체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여성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이에 여성은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해당 회차에서 강간 미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러브라인'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개 속 여성 캐릭터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으로만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수동적이고 약한 여성'과 '능동적이고 강인한 남성'에 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순정만화에서 반복되는 무력한 여성과 구해주는 남성 클리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 2-3
##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묘사

네이버 액션 / 15세이용가

8.4 / 237화




본 웹툰은 캐릭터들이 서로 싸우며 승패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폭력적인 장면이 다수 등장하는데, 6화의 술자리 장면에서의 여성폭력은 오로지 한 남성 캐릭터의 폭력성과 악랄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주인공 일행의 술자리에서 '백시은'이라는 여성에게 '강찬'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강찬은 시은과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며 시은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남성이다. 시은이 전화 받기를 꺼리자, 강찬은 화가 난 채로 직접 술자리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시은의 뺨을 손으로 때린다. 이어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딱 30대만 맞자"라며 다시 여성의 뺨을 때리려고 할 때 남자 주인공이 이를 막아준다. 해당 장면에서의 여성폭력은 '강찬'이라는 남성의 악랄함을 강조하고 주인공 남성과 마주할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최근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여성이 당할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을 향한 폭력이 사용된 것이다.



## 3
## 성적 도구화(대상화) 양상이 드러나는 사례

웹툰 속 성적 대상화로 지적된 사례들은 모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였다. 남성 권력에 대한 보상 또는 소유가능한 객체로서 여성이 등장했다.

## 3-1
## 보상으로서의 여성

네이버 액션 / 18세 이용가

6.2 / 228화

228화에는 '홍해교' 회장의 손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남성 여럿에 성접대를 하는 여성 여럿이 함께 둘러앉아 있으며, 여성들의 노출된 가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남성 손님이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도 등장한다.

7.28 / 236화

236화에는 환각성 약물인 '홀리쥬스'를 마신 후 가상의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남성이 자신의 강력한 힘에 관해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나체의 여성들이 남성을 둘러싼다. 남성은 여성들의 신체를 주무른다. 이러한 장면들의 선정성보다는 내용 속에서 여성들이 오로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8세 이상 이용가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남성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등장해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그려지는 묘사가 반복될 때 여성을 성적 객체로 인식하게 하는 성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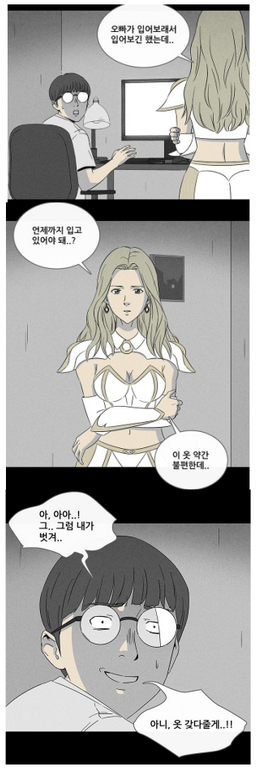
네이버 액션 / 15세이용가

9.21 / 18화

주인공과의 싸움 후, 주인공에게 무리에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등장인물은 "내 밑으로 들어온다면 돈, 여자, 권력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마"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여성을 돈이나 권력 같이 원한다면 주고받을 수 있는 보상의 존재로 설정하는 문제적인 장면이다.

네이버 옴니버스, 스릴러 / 12세이용가

6.29 / 6화




291화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컴퓨터 게임에서 이겨 돈, 음식 등의 전리품을 얻으면 현실에도 물질적 보상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주인공은 게임으로 현실의 돈과 음식, 그리고 집을 얻는다. 그가 여자친구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후 게임 내 여성 캐릭터마저 현실에 실제로 나타난다. 여성을 "능력"이 생긴 남성이 획득하는 존재로 그린 것이다. 등장한 여성 캐릭터는 "오빠가 입어보래서 입어보긴 했는데 언제까지 입고 있어야 해? 이 옷 불편한데"라고 말한다. 이 대사가 작품 내 여성 캐릭터의 유일한 대사이다. 이에 "벗겨... 아니 옷 갖다줄게"라는 남성 주인공의 대답은 여성 캐릭터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 3-2
## 소유 가능한 객체로서의 여성

네이버 에피소드, 액션 / 15세이용가

8.23 / 41화
8.30 / 42화

'장안철'은 학창시절 '김진우'를 괴롭혔던 비행 청소년이다. 장안철은 김진우의 저주를 받아 과거의 김진우 몸으로 들어갔으며,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김진우의 인생을 망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한다. 41화에서 장안철은 짝사랑하던 여성 캐릭터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에 "누나 내놔", "누나를 돌려 받는다", "주인공의 히로인을 뺏어가?" 등 여성 캐릭터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한다. 이어 장안철은 다른 남성을 누나의 남자친구로 오해해 그와 대결을 펼치는데 누나와 손을 잡았는가, 룸카페를 갔는가 등의 질문을 한다. 여성을 짝사랑할 뿐 여성과 교제하는 사이도 아닌 안철이 관여할 측면이 아님에도 이러한 전개가 계속된다. 해당 회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희화화 했지만, 여성을 소유 가능한 존재로 보는 시각은 여성을 객체화하기에 문제적이다.

## 4
## 외모에 따른 차별

네이버 스토리, 드라마 / 15세이용가

5.19 / 301화

297화부터 302화까지로 구성된 '회사원 김유이' 편은 김유이라는 여성 캐릭터의 대학 졸업 이후의 삶을 보여준다. '회사원 김유미' 편 전체적으로 김유미라는 캐릭터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인물에 가깝다. 김유이는 졸업 이후 성실하게 일해 꽤 큰돈을 저축했고, 본인의 삶에 안주하기보다 변화를 꾀하는 인물이다. 문제는 302화까지 김유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김유이는 그동안 미디어에서 수차례 반복되었고, 문제시되었던 '뚱뚱한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인물이다. '뚱뚱하고 못생겼지만' 잘생긴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 주변의 '마르고 예쁜' 여성 캐릭터들은 남자도 잘 만날 거라며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장면, 자신보다 마른 남자에게 애정표현을 할 때 일부러 과장하여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등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데, 이는 그동안 한국 개그 프로그램에서 뚱뚱한 여성을 묘사해왔던 클리셰들이다. 특히 301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뚱뚱한" 여성의 애정표현으로 남성이 멀리 날아가는 식의 묘사는 그간 한국 개그 프로그램에서 "뚱뚱한" 여성들을 희화화하며 비하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문제 시 되어 왔다.[7] 이러한 묘사는 "뚱뚱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성차별적 인식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중앙일보, 나 뚱뚱하다, 그래서 뭐? … 외모지상주의에 반기를 들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35520





성별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분석한 사례 는 두 건이 발견되었다. 두 사례 모두 남성들은 전통적 남성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성이 남성성 규범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의 목소리로 성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서울YWCA가 진행했던 웹드라마 모니터링에서는 남성이 직접 화장, 옷차림에서 다양성을 실천하거나 다양한 몸집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등 적극적인 성평등 재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웹툰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성평등 사례들이 발견되기를 바란다.

네이버 드라마 / 전체연령가

10.4 / 2부 23화

좋은 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남학생에게 여성 주인공이 핸드크림을 발라볼 것을 권하자, 복싱장의 형들이 놀린다는 이유로 "나는 꽃향기를 맡고 싶지 풍기고 싶지 않아."라고 거절한다. 꽃향기가 나는 것이 남자답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주인공 '나리'는 "21세기에는 남자도 향기로워야지 바보야~"라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며 핸드크림을 발라준다. '꽃향기'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남성에게서 꽃향기가 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며 성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8.2 / 2부 14화

좋아하는 학생에게 고백하고 싶어 하는 남학생에게 동성 친구들은 '남자라면 자신감 있게 공개 고백을 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들은 여성 주인공 '나리'는 먼 지역까지 따라가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공개 고백을 한다는 친구에게 "그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해? 무섭고 소름 끼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서동요야 뭐야?! 사귀기도 전에 도장 찍는 거랑 뭐가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관중 앞이라는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강요하는 것은 '남자다운 것'이 아니며 잘못되었다고 따끔하게 조언한다.

여성에게 공개 고백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여성에게 고백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여성 당사자의 의사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상황일 수 있음에도, 그동안 미디어에서는 이를 로맨틱함으로 그려냈다. 본 웹툰은 이러한 고백이 상대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행위임을 정확히 드러낸다.



# 03 나가며

각 플랫폼의 요일별 상위 4위 내 총 53편의 웹툰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평등한 웹툰은 2회차, 성차별적인 웹툰은 16회차가 발견되었다. 성적 도구화(대상화)의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 부각·강조 사례가 5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드러낸 사례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다양하게 재현되었는데, 문제는 해당 폭력들이 사소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문제를 희화한 한 사례는 그루밍 폭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내용을 여성 캐릭터 간 갈등의 소재로 사용하는 동시에 피해자 책임론을 유발하고 있었다. 성폭력에 대해 여성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묘사한 사례에서는 강간 미수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러브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이 그려지는 장면에서 피해자 여성이 당할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웹툰은 스토리가 있는 예술 작품이다. 웹툰이 담아내는 폭력이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혹은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을 사소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한 연구 결과(김윤종·문안나, 2019)는 폭력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 등 폭력이 어떻게 처벌되거나 처리되는가가 웹툰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수용자들이 폭력에 무감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9]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에 제시한 성차별 사례들에서도, 피해자 여성이 겪게 될 수 있는 고통과 폭력에 따른 처벌을 담아낸 내용은 찾기 힘들었다. 여성폭력이 심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로 사용될 때 해당 웹툰을 즐겨보는 청소년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게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성적 도구화(대상화)로 지적된 사례들은 여성을 권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리거나, 몸과 성을 제시하거나 소유 가능한 객체로서 여성을 등장시켰다. 성적 대상화의 논의는 단지 노출이나 선정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권력의 보상 혹은 소유 가능한 성적 존재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적인 것이다.

시대물에서 발견한 성차별적 설정은 사례로 싣지 않았다. 여성 중심 웹툰에서 여성의 특성이나 남성의 역할이 전통적 고정관념에 따라 규정된 사례들이었는데(여성을 손바느질이나 내조로, 남성을 무술과 연결 짓는 등), 과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웹툰에서의 불가피한 설정이었는지 20회차 모니터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과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젠더재현을 보이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다. 판타지가 가미된 픽션에서의 설정을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만 구성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경이 과거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는 장면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웹툰 모니터링은 2020년 진행했던 모니터링 장르 중 모니터단이 가장 힘들어했던 작업이었다. 모니터링 범위는 20회차였지만, 한 사례의 분석을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회차를 살피며 캐릭터의 설정

9
김윤종.문안나.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양태와 맥락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 (2020): 245-258.

및 스토리 전개 등의 맥락을 점검했다. 또한 해당 장면들이 어떠한 성차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섬세히 설명해내려 하였다.

올해 상반기 <이태원 클라쓰>, <메모리스트>, <루갈> 등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개봉된 것처럼,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성차별적 웹툰의 해악이 단순히 웹툰 독자들 뿐 아니라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웹툰 속 성차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다. 웹툰 독자들 뿐 아니라 창작자, 플랫폼, 자율규제위원회 등 웹툰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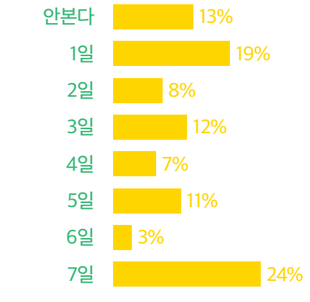


# 부록. <웹툰 속 차별 혐오 인식 조사> 결과 정리

서울YWCA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 동안 웹툰 속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웹툰 속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등장하고 이것이 웹툰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제 웹툰 독자들은 웹툰 속의 차별과 혐오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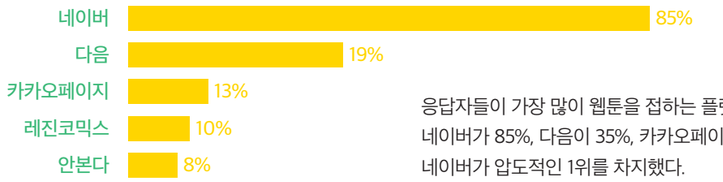
200명이 응답하였고, 이를 전체 웹툰 이용자 대비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웹툰 속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닌다 판단한다. 총 5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 1 평소 웹툰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1주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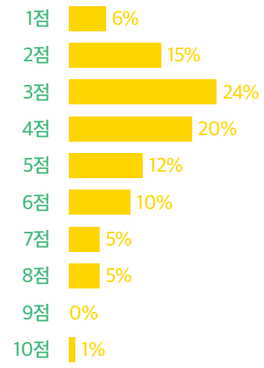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7일'로 거의 매일 1개 이상의 웹툰을 읽는 독자가 24%(48명) 였다. 1주일에 한번 웹툰을 본다는 응답자가 19%(39명)로 그 뒤를 이어 평균 3.5일 웹툰을 소비하고 있었다.

## 2 웹툰을 주로 접하는 플랫폼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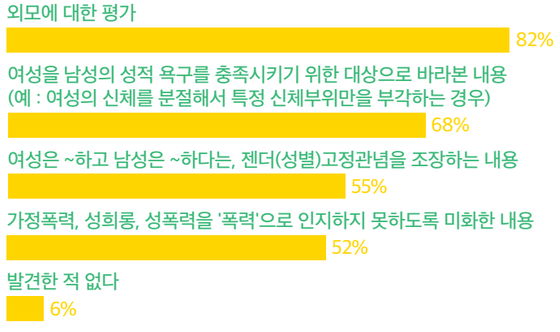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웹툰을 접하는 플랫폼으로는 네이버가 85%, 다음이 35%, 카카오페이지 13%로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 3 최근 웹툰들의 성평등 점수는 얼마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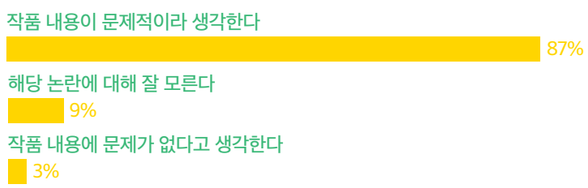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자신이 읽는 웹툰의 성평등 점수로 평균 4.1점(10점 만점)을 부여했다. 10점 만점을 부여한 응답자는 200명 중 3명에 불과했으며 가장 최하점인 1점을 부여한 응답자는 12명으로 전체 6%를 차지했다. 평균 점수가 나타내듯 44%의 응답자가 3~4점을 부여했다.

## 4
## 평소 접하는 웹툰 속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발견한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중복 체크 가능)




응답자들이 발견한 웹툰 속 차별과 혐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중복 체크를 허용한 본 항목에 전체 응답자 중 82%(185명)가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발견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137명)로 그 뒤를 이었다.

## 5
## 최근 웹툰 속 여성 등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었죠. 이 논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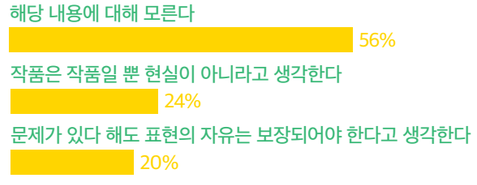



웹툰 속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질문에 대해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가 87%(175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웹툰 속 혐오 표현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참가자들 대다수가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된 응답자들의 답변(주관식 질문으로 응답자들이 직접 답변을 입력함)을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것이다.

### 5-1
### 작품 내용이 문제적이였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추가 질문함

### 5-2
### 작품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175건의 답변 중 대표 키워드 40개를 추출하였다. 많이 언급된 단어 중 '대한', '필요하다'와 같은 동사를 제외했을 때, '플랫폼', '작가', '성평등', '교육'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답변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기준을 미달하는 작품의 경우 작가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 '웹툰 작가들와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으며 '모르겠다'라고 작성한 응답자도 있었다.




질문5에서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해 56%(14명)이 '해당 내용에 대해 몰라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웹툰의 여성혐오 논란과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질문과 이어지는 답2와 답3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유의미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웹툰 속 차별과 혐오가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들이 이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해당 논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6
## 나는 [ ]없는 웹툰이 보고싶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위와 같은 질문에 응답자들이 주관식으로 대답한 200개의 답변의 주요 키워드는 '성차별', '여성 혐오', '성적 대상화' 였다. 더불어 '외모지상주의', '가슴 극대화', '여성 노출', '된장녀와 김치녀 프레임' 등도 언급되었다.

# 웹툰 체크리스트

## 모니터링 지표

| 성차별적 내용 |
|---|

1. 작품의 표현 중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없다 ② 있다

2.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1) 성별에 따른 성역할 구분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 군인·경찰은 남성의 직업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사·교사 직업에 더 어울린다.
가장은 남성인 것이 당연하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성이 해야 한다 등
2) 성역할 구분에 따라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3) 특정한 성별은 특정한 속성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성역할 구분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 여성이 배려심이 많아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 남성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한다. 여자아이는 상냥하고 친절해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유리하다.
① 없다 ② 있다

3. 성적 도구화(대상화) 양상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① 신체의 일부 지칭어를 통해 여성 또는 남성을 표현
② 한 성별이 다른 성별의 성욕을 위해 존재한다고 표현
③ 여성 또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
예)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다. 여성이 강간을 좋아한다
④ 성희롱,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
⑤ 여성 또는 남성과 관련된 성적 표현 중 기타
⑥ 없음

4.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부각/강조한 언어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① 없다 ② 있다

5. 외모에 따른 차별의 언어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 외모에 따른 차별이란 외모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외모가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임. 여성/남성의 특성을 외모만으로 축소시키는 것, 외모를 기준으로 비하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특성에 대한 다양성 가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함
① 없다 ② 있다

6. 성차별적 멸시/모욕/위협 등을 위해 특정한 종류의 비하/차별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 특정한 종류의 혐오표현 - 인터넷 밈(meme)으로서 확정되어 널리 공유되거나, 소규모 커뮤니티 혹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활용되는 혐오차별을 위한 용어

07 웹툰

#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행인** : 이유림 **편집인** : 양선희 **편집** : 최봄 김혜리 강유민(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발행처** : 서울YWCA **주소** :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 02-3705-6069 **팩스** : 02-3705-6020 **홈페이지** : www.seoulywca.or.kr **발행일** : 2020년 12월 **협력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